

# 북한을 위한 기도

2025년 10월



# 1.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나란히 서며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전승절 행사 이후 진행된 북중 정상 회담에서는 양국간의 경제 교류 확대가 논의되었습니다. 러우 전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이번 전승절은 북중 관계 개선 및 경제 교류 확대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선교 현장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중러 협력 강화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대결구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북중 교류 확대가 북한 선교를 위한 접촉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린다면 마주앉을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과는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3단계 비핵화론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고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대남 위협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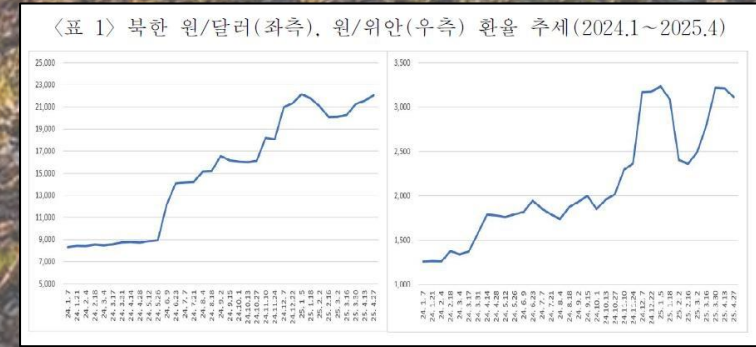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조성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바른 방향으로,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NGO들의 북한 사역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1년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북한의 통제 중심의 경제 정책과 평양 및 군수산업 위주의 자원 배분 속에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관광 산업이 북한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북한의 중점적으로 투자해왔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7월에 개장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대규모 관광지 개발을 이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관광객 저변 확대와 투자 유치에 제한이 있고, 자유관광이 불가능하며 인프라도 부족하여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관광업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가져오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이미지와 신뢰 개선이 필요한 만큼 북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주목됩니다. 관광산업이 북한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정책이 변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5.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습니다. 대다수는 학생 비자로 입국했는데, 이는 노동자 파견을 금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중국 기업 (사진=NK NEWS)



##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24년 초 러시아에 구금된 백 모 선교사님도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국

순위	국가	순위	국가
1	북한	11	인도
2	소말리아	12	사우디아라비아
3	예멘	13	미얀마
4	리비아	14	말리
5	수단	15	중국
6	에리트레아	16	몰디브
7	나이지리아	17	이라크
8	파키스탄	18	시리아
9	이란	19	알제리
10	아프가니스탄	20	부르키나파소

〈자료: 한국오픈도어선교회〉



##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탈북 여성들 수백여명이 연락을 주고받는 위챗 단톡방에 모 선교단체의 무리한 설문조사 시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설문은 이름, 출생연도,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북한 내부의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위챗을 통해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정상적인 응답을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응답자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역에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사례가 제공된다는 말에 설문에 참여했던 여성들 상당수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탈북 여성 사역에 나서는 기관이나 사역자들이 오히려 북한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주의 깊은 자세로 사역에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